

- 강동하남남양주선 광역철도(지하철 9호선 연장) -

주민 의견 반영 촉구 결의안

의안 번호	3042
----------	------

발의연월일 : 2025년 1월 일

발의자 : 정병용 의원

1. 주 문 : 별첨 “결의문”과 같음

2. 제안이유

가. 강동하남남양주선 광역철도(지하철 9호선 연장) 사업은 수도권 동북부 교통 체증 해소와 지역 균형 발전을 목표로 하는 핵심 국책사업으로, 주민의 실질적인 교통편의 증진과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그러나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주민 의견 반영이 필수적이며, 출구 위치 선정, 환승 시스템 구축, 지역 관광지 및 상권 활성화 등 구체적인 사항에서 지역 주민의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함.

3. 이 송 처 : 대통령비서실, 국무조정실장, 국토교통부장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서울특별시장, 경기도지사, 하남시장

4. 결의문(건의문) : 붙임

- 강동하남남양주선 광역철도(지하철 9호선 연장) - 주민 의견 반영 촉구 결의문

지난 연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승인한 강동하남남양주선 광역철도 기본 계획은 서울시 강동구 고덕강일 1지구에서 하남 미사강변도시와 남양주 왕숙신도시·진접2지구를 연결하는 총 연장 약 17.6km의 철도를 건설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GTX-B 노선, 서울 지하철 9호선, 경춘선, 경의중앙선 등 다양한 교통망과 연계되어 수도권의 교통 허브 역할을 수행하게 될 전망이다.

본 계획은 약 2조 8,24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핵심 교통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수도권 동북부 지역의 만성적인 교통 체증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9호선 연장 완료 후에는 미사강변도시에서 강남까지의 출퇴근 시간이 기존 44분에서 환승 없이 22분으로 단축되는 것으로 나타나, 주민들의 출퇴근 편의성이 대폭 향상될 것이다.

더불어 본 사업은 단순한 교통망 확충을 넘어 지역 균형 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될 것이다. 철도 노선 개통으로 서울과의 접근성이 강화되고, 신도시 지역의 상업 및 산업 활성화가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하남시는 도로, 철도, 교통 인프라와 풍부한 문화 자원, 그리고 자연환경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균형 잡힌 도시로 발전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대규모 택지개발 지역의 철도 접근성 확보로 자동차 이용률이

감소하고, 대중교통 중심의 친환경적 도시 발전이 가능해질 것이다.

이러한 강동하남남양주선 광역철도(지하철 9호선 연장) 건설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지역 발전을 고려한 세부 계획 수립이 필수적이다.

특히 역 인근의 구산문화마을, 구산성지 및 지식산업센터 등 지역 상권을 연계한 경제성 분석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하며, 교통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을 통해 지역 관광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하남시의회는 2031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되는 본 사업이 지역 주민의 실질적인 교통편의 증진과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주민 의견이 적극 반영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지하철 출구와 주요 상권 및 시설을 연결하는 무빙워크 설치를 적극 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지하철 출구 위치 선정과 설계 과정에서 인근 단지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지하철 5호선과 9호선을 연결하는 도심 환승 교통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944 정거장(가칭 신미사역)에 일반 열차와 급행 열차가

병행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미사강변도시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구산문화마을과 지식산업센터 등 인근 상권 활성화를 위한 시설 및 운영 계획을 ‘기본 및 실시설계’에 포함 시킬 것을 촉구한다.

하나, 2031년으로 계획된 개통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기 위해 하남시와 국토교통부, 서울시, 경기도 등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력을 촉구한다.

2025년 2월 10일

하 남 시 의 회